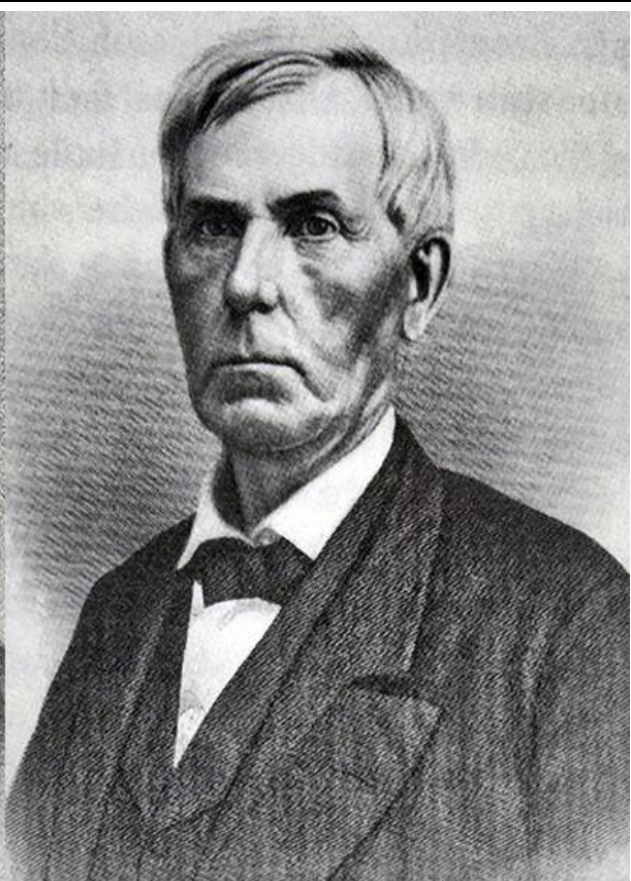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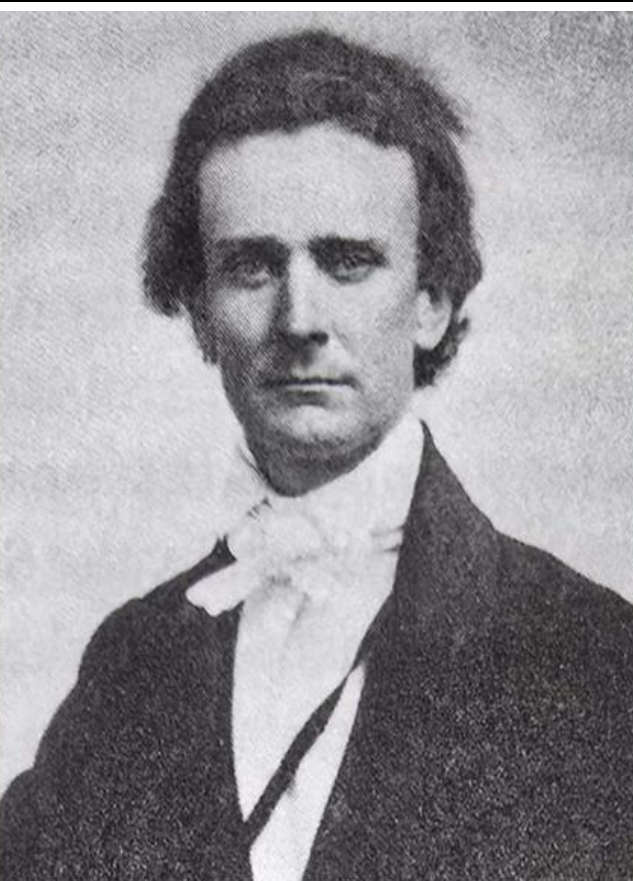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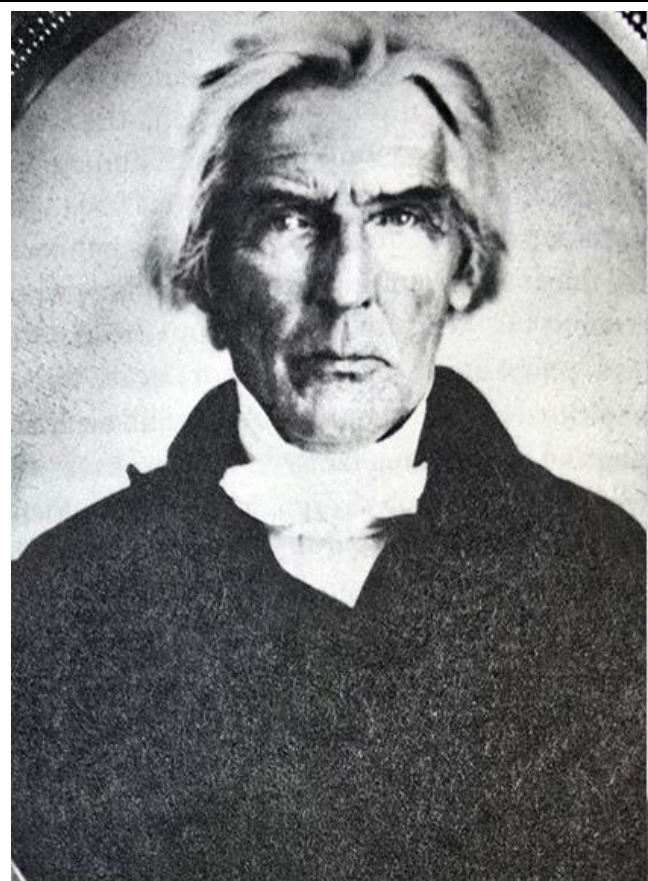


방어와 갈등 Defense and Conflict

퍼거슨 사건:
The Ferguson Affair



Alexander Campbell
1788-1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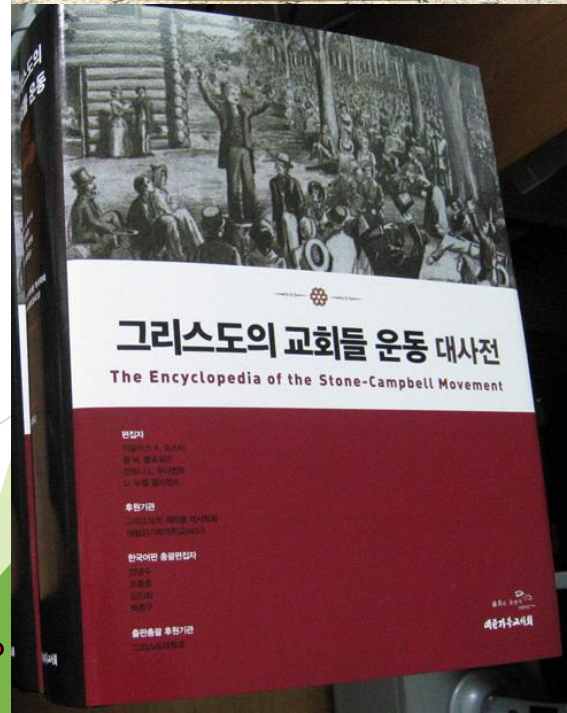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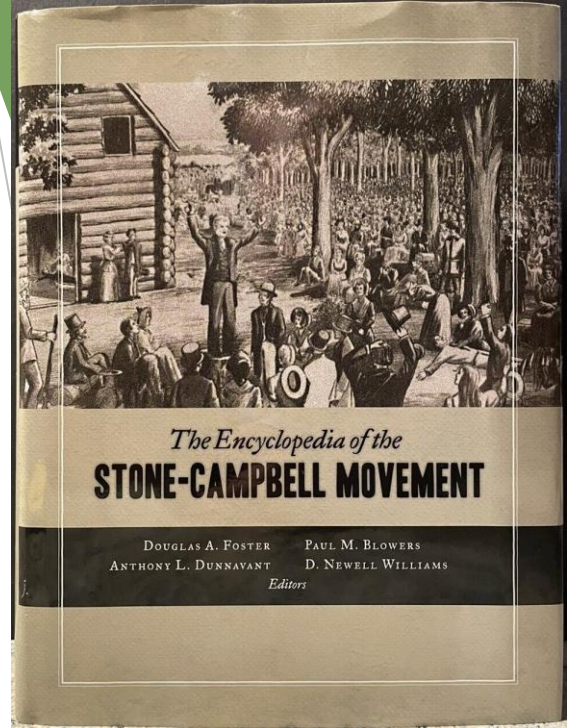
Jesse B. Ferguson
1819-1870

Robert Richardson
1806-1876

Tolbert Fanning
1810-1874

제시 퍼거슨은 내슈빌 그리스도의 교회의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목회자이자 Christian Magazine의 편집인이었다. 퍼거슨이 1852년 4월호에 베드로전서 3:18-4:6에 대한 논쟁적인 해석을 게재하자, 이 해석에 대해 알렉산더 캠벨이 날카롭게 대응하였다. 1200명을 수용할 예배당을 건축할 만큼 촉망 받던 젊은 퍼거슨은 결과적으로 스톤-캠벨운동권을 떠나 보편(만인구원)주의, 유니테리언주의, 심령주의를 수용하였다. 이로 인해서 캠벨은 동료인 의사 로버트 리처드슨 뿐 아니라 톨버트 패닝과도 소원해졌다.

-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개혁가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788-1866)의 생애는 **교리적 논쟁과 토론으로 점철된 전쟁 같은 삶이었다**. 그는 1823년부터 7년간 <Christian Baptist>를, 1830년부터 1866년 사망 때까지 <Millennial Harbinger>를 발간하여 평생 글을 썼고, 여러 권의 책도 펴냈다. Bethany College와 베다니 교회를 세워 평생 가르치고 설교했다. 그는 농장주와 인쇄소 사장이었고, 순회전도자와 유명한 토론가였으며, 무엇보다 **‘환원(교회 개혁과 일치)운동’**과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창시자였다.
- 방대한 <스톤-캠벨 운동 대사전>에는 인물, 단체, 기관 등 외에도 3세기에 걸쳐 토론된 수많은 신학논쟁의 이견들을 담고 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역사는 신학적 토론과 논쟁으로 점철된 방어와 갈등사였다. **‘옳음’**을 찾는 일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가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신중하고 겸손히 내려야 하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 역사이다.



-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운동은 사도시대의 복음과 관례(ancient Gospel and order of things)를 회복하고 일치를 이루자는 운동이다. 신약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나라)로 연합하자는 운동이다.
- 그 운동이 성취되게 하려면 본질적인 것만 일치를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신앙 양심에 따른 자유를 허용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임해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연합정신을 발휘하자는 것이었다.
- 이런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세기에 걸쳐 많은 이들이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라 우기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금지라고 말하며, 견해가 다른 형제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밀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포용함으로써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끌기도 하였다.

-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최요한 목사는 1951년 늦봄에 스승 김은석 목사의 주례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다가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이적하여 1953년 초에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에 목포 유달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였다.
- 그러나 김은석과 이신 목사 등은 최요한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오히려 유달 순복음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을 걸고 백일성경연구집회 등을 인도하였다.
- 한편 최요한 목사는 그리스도의교회들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주의 만찬예배에 대한 신념도 확고해서 김은석 목사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과 친목(rapport)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
- 결국 최요한은 1957년 8-9월에 그리스도의교회들로 복귀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10월 5일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기 직전에 목포시 대안동 11번지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김은석 목사
1902-1963



이신 목사/박사
1927-1981



최요한/용환 목사
1923-1998



목포그리스도의교회
1952/57-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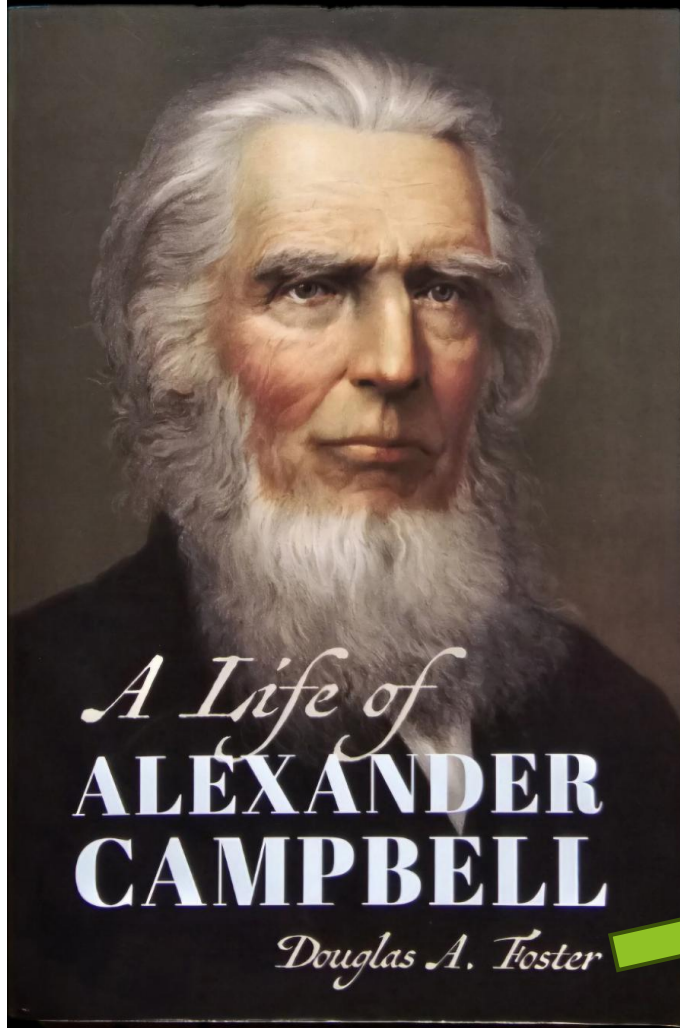
한국의 바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들 (Christian Churches)의
포용과 일치에 상징적 인물들**

- 역사는 우리에게 '자기의 신학적 이해' 혹은 '주장된 정통신학'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신앙 양심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면, 주장된 정통신학을 가진 사람의 오만이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어 분열을 낳고, 그 분열이 또 다른 분열을 낳게 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 역사는 우리에게 '정통에서 벗어난 신학적 이해'를 가진 사람이 침묵하지 않고, 계속 나팔을 불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멈추지 않으면 분쟁이 일게 되고, 그 분쟁으로 공동체가 쪼개진 수많은 사례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 역사는 우리에게 '정통에서 벗어난 신학적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침묵하고, 나팔 불지 않으며, 또 '주장된 정통신학'을 가진 사람이 '정통에서 벗어난 신학적 이해'를 가진 사람을 포용하고 친목(rapport)을 다져 연합과 일치의 결과를 얻게 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W. 스톤의 사례이다.
- 스톤은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대속의 속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그의 믿음(신념)이 이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캠벨은 스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스톤은 상당한 교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캠벨을 가장 유능한 동료 개혁가로 묘사했고, 끝까지 캠벨과 갈라서지 않았다.
- 캠벨은 스톤과 그의 개혁을 핵심적인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행에 있어서 이단적이진 않더라도 결함이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였지만, 자신의 침례교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부터 스톤과의 연대가 그의 개혁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스톤이 184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의 힘과 이해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사도적 틀을 진심으로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으므로 추상적인 정통성보다 도덕적 우수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그리스도교의 모든 위대한 사실과 문서들을 진심으로 믿고 소중히 여길 때 더욱 그렇다.”

- 스톤-캠벨운동은 오켈리와 라이스 해거드의 공화감리교회운동 등을 포함하면 4세기 째에 들어서 있는 셈이지만, 햇수만으로는 2백 20년이 조금 넘었다.
- 스톤-캠벨 운동은 출범한지 100년쯤 된 1900년에 미국인구 증가율의 두 배나 더 빠르게 성장하여 한 해 동안 무려 1천 개 교회가 추가되기도 했다. 교회가 한 주에 거의 20개씩 증가한 셈이었다. 만일 뒤따른 분열이 없었다면, 50년 후인 20세기 중반까지 이 운동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미국에서의 교인수가 4천에서 6천만 명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900년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 운동이 두 갈래로 갈라진 분수령(1906년)에 몇 걸음만 남긴 해였다.
- 역사는 우리에게 '자신의 신학적 이해'를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에까지 파고들게 하거나 이단으로 정죄하는 오만 때문에 형제를 밀어내어 분열을 낳고, 분열이 또 다른 분열을 낳게 하지만, 형제를 포용하고 친목(rapport)을 다지면, 그 형제가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자제하고 마침내 내려놓음으로써 화합이 이루어진 수많은 사례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 환원운동사는 알렉산더 캠벨이 방어와 갈등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캠벨-퍼거슨-패닝-리차드슨 사건이 그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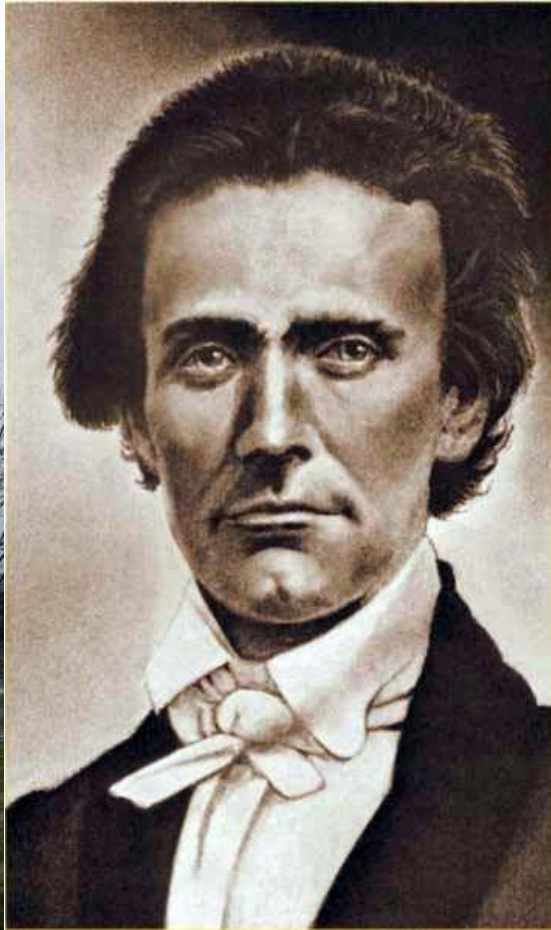
제17장 퍼거슨-팬닝-리차드슨 사건:
The Ferguson-Fanning-Richardson Affair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by Douglas A. Foster,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 알렉산더 캠벨은 말년에 자신의 정기간행물인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의 공동 편집자이자, 베다니 대학의 공동 창립자, 오랜 과학 교수였으며, 사후 자신의 전기 작가가 된 가장 가까운 개혁운동의 동료였던 로버트 리처드슨(Robert Richardson)과 가장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논쟁을 펼쳤다.
- 그러나 이 논쟁은 1847년 3월에 테네시 주 내슈빌에 소재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임목사가 된 28세의 제시 B. 퍼거슨(Jesse B. Ferguson)과의 분쟁에서 비롯 되었다. 퍼거슨은 카리스마 넘치고 능력이 뛰어난 설교자였다.
- 퍼거슨은 그해 10월에 프랭클린 대학(Franklin College)의 학장이었던 톨버트 패닝(Tolbert Fanning)이 1844년에 시작한 <Christian Review>지를 인수받아 <Christian Magazine>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임자 패닝은 공동편집자로 남았다.
- 퍼거슨은 목회성공과 높은 명성에 힘입어 1852년에 1,200명을 수용할 메가 집회소를 건축하였다.

- 그리고 바로 그해 4월에 퍼거슨은 <Christian Magazine>에 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로 인해서 알렉산더 캠벨과 격렬한 논쟁에 휘말렸고, 또 동역자들인 캠벨과 리처드슨의 사이도 갈라놓았다.
- 논란이 된 기사는 퍼거슨이 베드로전서 3:18-20을 해석한 내용이었다. 퍼거슨은 자신의 사상(보편주의, 만인구원설)이 개혁(환원)운동권 교회들이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재를 단행했다.
- 그해 6월에 캠벨은 격렬하게 대응했다. 캠벨은 퍼거슨의 기사를 "새로운 발견"(A New Discovery)이라는 제목으로 14페이지 분량의 글로 퍼거슨의 해설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런 해석은 생전에 그리스도를 불신했던 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지상명령인 선교의 동기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음부에 갇힌 모든 영혼들은 그들에게 탈출기회를 주는 첫 설교를 듣자마자 반응할 것이라고 캠벨은 비웃었다. 사실, 퍼거슨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생전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만 전파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 캠벨은 자신의 해석이 헬라어의 문자적인 번역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방주가 건축될 당시를 살고 있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전파하셨다는 것이라고 했다. 캠벨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설교하셨다는 것은 순수한 허구로서 퍼거슨이 근거 없는 상상력으로 만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은 “사도시대의 복음과 관례”를 회복하자는 개혁운동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 이후 3년간 캠벨은 지속적으로 퍼거슨을 비난하였고, 이 공격에 다른 동역자들까지 합세하였다.
- 퍼거슨은 1853년 말에 <Christian Magazine> 발행을 중단했지만, 높은 인기 때문에 내슈빌의 신문들이 그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 1854년까지 퍼거슨에 대한 혐의는 보편주의자, 유니테리언주의, 심령주의로 확대되었다. 이에 퍼거슨은 7월 16일 자신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의 설교는 소책자로 만들어져 배포되었다.

- 퍼거슨을 반대하는 내슈빌 교회 교인들은 캠벨에게 도움을 청했고, 캠벨은 11월 24일(금) 도착했다. 생애 다섯(?) 번째 방문이었다. 캠벨은 토요일 하루를 쉬 다음, 거의 쉬지 않고 8일 동안 퍼거슨과 그의 신념을 반박하였다.
- 퍼거슨은, 보스턴의 윌리엄 엘러리 채닝(William Ellery Channing) 박사라는 영매에게 물었는데, 영매가 캠벨의 집회에 가지말라고 경고했고, 캠벨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 캠벨의 방문은 퍼거슨 반대자들에게 격려가 되었으나, Cherry Street Christian Church의 퍼거슨 지지자들은 그를 1856년 7월까지 목사로 유임시켰다. 그 달에 퍼거슨은 반대 교인들이 건물 점유를 위해 제기한 소송의 여파로 사임했다. 퍼거슨이 떠나자 소송은 불필요 해졌고, 반대자들은 12월에 건물로 돌아왔다. 그들은 전임 목사 필립 S. 폴을 다시 담임 목사로 불렀다. 그러나 1857년 4월 8일 아침 5-6시 사이에 교회 인근의 목수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고, 소방차들이 철수하려던 6시경에 웅장한 체리 스트리트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돔과 첨탑에서 불길의 치솟았으며 예배당은 잿더미로 변했다. 방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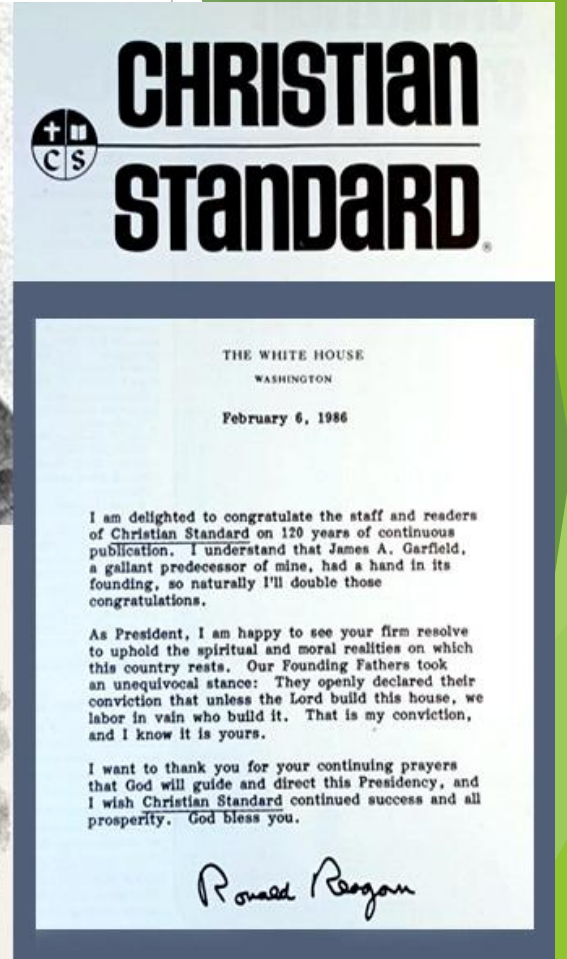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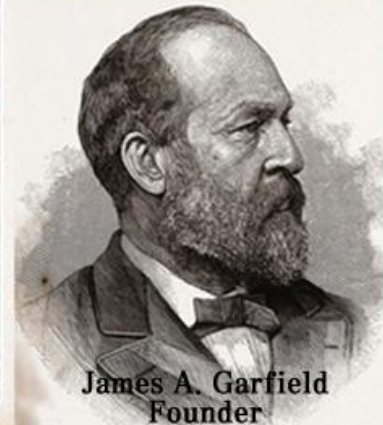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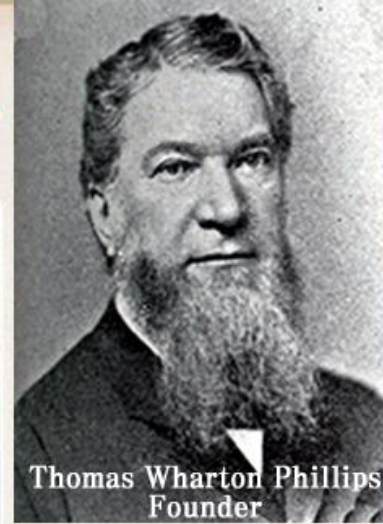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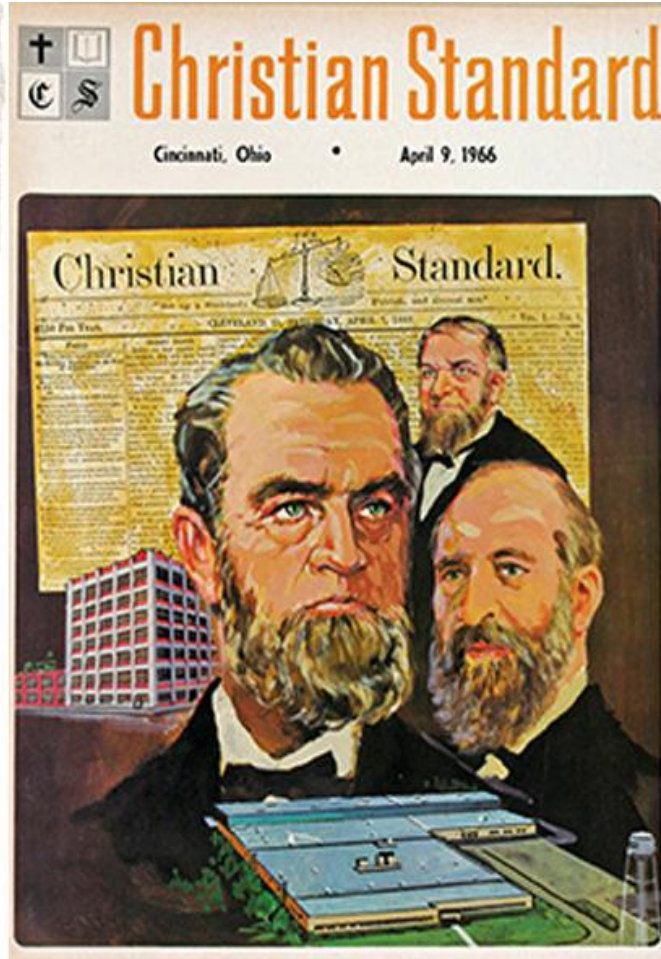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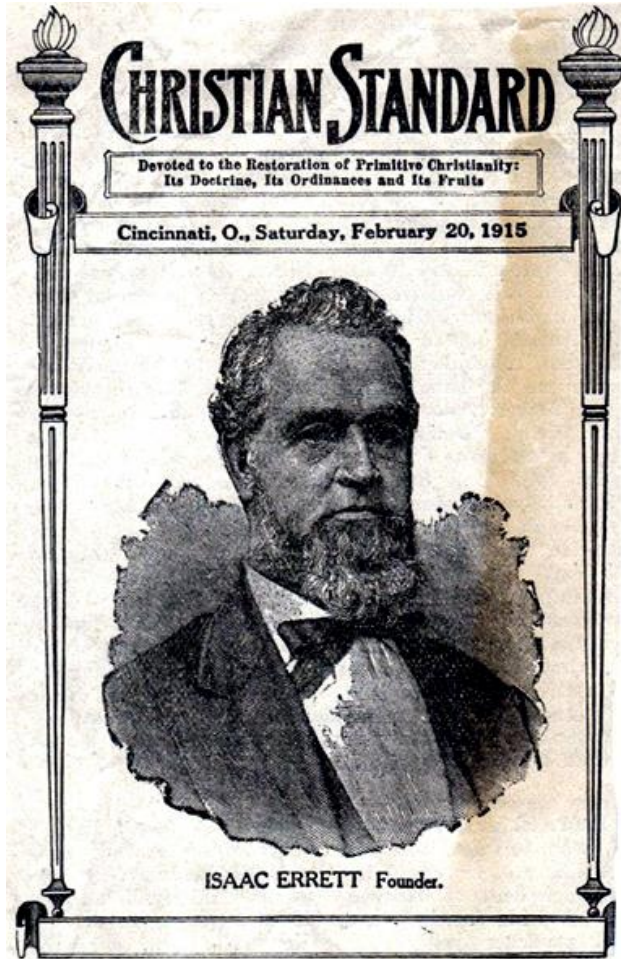
제시 밥콕 퍼거슨(D.D., Jesse Babcock Ferguson, 1819-1870)의 묘비
퍼거슨은 인쇄공 소년에서 가장 영예롭고 존경받는 강단 설교자가 되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후의 삶은 피폐했고, 부부와 외동딸은 60세를 넘기지 못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인기 설교자들과 세상의 찬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슬픈 교훈이다."고 David Lipscomb는 Gospel Advocate(Sept. 22, 1870)지에 썼다.

- 퍼거슨 사건은 알렉산더 캠벨과 톨버트 패닝(Tolbert Fanning) 및 로버트 리처드슨 (Robert Richardson) 사이를 벌려 놓았다.
- 패닝은 퍼거슨이 담임했던 내슈빌 교회의 영향력 있는 전도자요, 편집자요, 대학 학장이었고, 캠벨은 그의 신학과 사역에 큰 영향을 끼쳐 사도시대의 복음과 관례를 회복하려는 열정을 불태우게 했다.
1835년과 1836년에 패닝은 캠벨과 함께 설교 여행을 했고 Millennial Harbinger에 자주 기고했다. 캠벨도 패닝의 프랭클린 대학과 그의 간행물 Gospel Advocate를 지지했고,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
- 리처드슨은 캠벨의 Millennial Harbinger의 공동 편집인이자, 베다니 대학의 공동 창립자요, 과학 교수였으며, 의사였다. 캠벨이 별세한 후에는 캠벨 가족의 요청에 따라 캠벨의 전기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를 쓴 가장 가까운 개혁(환원)운동의 동료였다.

- 캠벨은 퍼거슨, 리처드슨, 패닝과의 논쟁 과정에서 세 사람 모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성공했다.
- 그 결과 퍼거슨은 개혁(환원) 운동권에서 떠났고, 패닝은 캠벨과 영구히 소원해졌으며, 리처드슨은 다시 캠벨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 되었다.
- 그러나 이 무렵 곧 나이 70대 초에 캠벨은 종종 초기 치매증상을 보이곤 했다.
- 패닝의 Gospel Advocate는 퍼거슨 사건 직후 노예제도와 악기사용 등의 문제에 대한 남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대변지가 되었고, 분열(1906년)의 온상이 되었다.
- 1866년에 창간된 Christian Standard지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Disciples of Christ/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대변지가 되었다.

- 교단의 지도부와 대학들이 진보신학에 경도되자 많은 보수교회들이 탈퇴하여 독립교회 형태를 유지하였다.
- 보수교회 지도자들과 Christian Standard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고, 오늘의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가 되게 하였다.
- 그러나 Disciples of Christ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으로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1930-40년대였다.
- 보수진영이 최초로 별도의 '그리스도인 대회'를 개최한 것은 1927년이였다.
- 진보진영이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라는 교단으로 재구성된 것은 1964년이였다.
- 이들 3개 교단은 지금도 꾸준히 연합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는 United Church of Christ와의 연합을 더 확고히 한 상태이며,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의교회들이 아닌 기독교 장로교와 교류하고 있다.

CS 창간자들: 아이작 에릿, 제임스 가필드, 토마스 필립스



Christian Standard 창간 50주년, 100주년, 120주년
기념호 (레이건 대통령의 CS 창간 120주년 축하 메시지)



Photo of 1909 Centennial Convention in Pittsburgh, Pennsylvania, courtesy of th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Nashville, Tennessee.

Conventions Remembered... Convention Anticipated

"Starting with one man a hundred years ago, we now have 11,700 churches, enrolling 1,335,000 members, and ministered to by 6,900 preachers and evangelists."

The speaker was C. J. Tannar, of Detroit, who had come to Pittsburgh on this October day in 1909 to address the Centennial Convention on the topic "Progress and Achievements of a Hundred Years."

Tannar had no shortage of material. From the upstairs room in Pennsylvania where Thomas Campbell wrote his plea for Christian unity, *The Declaration and Address*, the movement had spread across North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Centennial Week, 1909

More than 50 speakers, in sometimes

came home "talking for weeks about 'nothing else' but Pittsburgh, the Centennial, and the Restoration Movement."

Money was no problem to lumber magnate R. A. Long, who chartered a special train to bring in the Kansas City delegation and leased the entire Schenley Hotel to house them. Hundreds of specials from California, Missouri, Indiana, Iowa, Kentucky, Oklahoma, Texas, and Kansas jammed the railroads.

Oregon sponsored the construction of a river steambout (built by James Rees and Sons, Pittsburgh), dedicated it, dismantled it, and shipped it to the Congo. *The Oregon* served well and enabled thousands to hear the gospel who otherwise would never have heard.

Among those featured at the Veterans Camp Fire was J. W. McGarvey—bent, feeble, nearly deaf, and carrying an ear

having possibly a long wait at the booths and a tiresome street-car ride after the wait."

Thousands heeded his call, many sending their "centennial dollar" for a commemorative ribbon and medallion picturing the Brush Run Church and likenesses of Thomas and Alexander Campbell, Barton W. Stone, and Walter Scott.

The climax of the convention was the Communion service in Forbes Field on Sunday afternoon, with 20,000 in the stands and thousands more on the bleachers and playing field.

Wallace Sharp of Pittsburgh was in charge, assisted by 500 deacons and nearly 100 elders from 45 tables. In a simple service, without benefit of a public-address system or image magnification, the crowd ate the bread and drank from the cup in solemn, prayerful, impressive stillness.

brotherhood were so disgusted by the conduct of the liberals 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Memphis in 1926 that a "Committee on Future Action" was formed, resulting in a call for a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in Indianapolis, October 12-16, the following year.

A New Convention, 1927

This new convention would not be a convention of agencies, nor would it have anything to do with policy making or officialdom. It would be a preaching convention, emphasizing the great themes of the movement: "The Diety of Jesus," "The Authority of the New Testament," "New Testament Baptism," "Origin and Growth of the Restoration Movement," and others.

P. H. Welshimer described what he hoped the convention would be: "There are many agencies and organizations of our denomination, and during the past few years they have broken into full flood. In the acapelle churches of Christ had asked the entire brotherhood is invited."

1906년 Churches of Christ와 갈라선 직후인 1909년 10월 11-19일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야구장에서 개최된 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1백주년 대회. 이 대회는 다수의 초기 진보신학자들의 등판무대이기도 했다.

▶ We are Christians only,
but not the only Christians.

▶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리스도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환원운동의 원칙'

- 책은 성경만(No Book but the Bible)
- 신조는 그리스도만(No Creed but the Christ)
- 명칭은 하나님 의 것으로만(No Name but the Divine)
- 주장은 복음만(Our Plea Only the Gospel)
- 일치 의 근거는 성경(신약)으로만(The Basis for Unity the Bible Alone)
- 기본교리에는 통일(In Essentials Unity)
- 의견에는 자유(In Opinions Liberty)
- 매사에는 사랑으로(In All Things Charity)



백주년대회 포스터(피츠버그 1909.10.11-19.)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모두 하나가 되어...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모토
"일어나 건축하자"(느 2:18)